

---

第11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錄 第8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9年3月5日(金) 午前00時

場所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廢棄物分野)

---

審査된案件

1.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廢棄物分野) ... 1面

---

(00時 開議)

○委員長 金鍾來;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臨時會 제8차 環境水資源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廢棄物分野)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環境管理室 所管 廢棄物分野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어제, 그러니까 3월 4일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산회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요지는 이것을 위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양을 정비하지 않았던 부분을 車輛整備事業所에서 담당하지

않고 민간한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車輛整備事業所長 李東塢;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그 비차체 위탁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안하고는 구청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요, 중간에 車輛整備事業所에서 담당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일을 할거냐, 구청에서 알아서 하게 맡겨 둘거냐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고장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차체부분만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비차체부분만은 직접 여기에서 안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다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고치러 오지 않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車輛整備事業所에서 별도로 수탁업체를 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 놓고 그때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얘기는 쉽고 분명한 건데요. 車輛整備事業所에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왜냐 하면 어느 면에서는 종합해서 여기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李成浩 委員; 먼저 들어 보십시오.

車輛整備事業所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 인원만을 유지하고

또 그 부품정비 그 분야만 정비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구조조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車輛整備事業所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車輛整備事業所를 이용토록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車輛整備事業所를 이용토록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것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우리 하는 측이 서울시 車輛整備事業所에 고쳐야 될 부분이 고장이 나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안내하고 협조하는 정도의 서비스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맺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다 하는 것도 그것은 아주 극히 부수적인 거예요. 본연의 임무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 차량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 다만 그런 원칙인데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원은 있는데 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인원감축은 했지만 기본적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큰 고장이든 작은 고장이든 우리 시 車輛整備事業所로 가져오되 이 자체인력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치구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에

서 고쳐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결재를 하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은 데하고 결재를 하겠다,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큰 차이예요.

그것을 왜 뭉뚱그려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방침이 정확히 결정 안 됐으면 안 된 것이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결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민간위탁의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서 알아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향보다는 車輛整備事業所에서 일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경비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구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車輛整備事業所에 추가인력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후자네요. 그러면 이 쪽인지 저 쪽인지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고, 후자가 분명하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분명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근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 비차체 분야에 관련해서는 카센터에서도 충분히 수리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서예학원 차량을 車輛整備事業所에 의무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체부분은? 그것도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의무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답변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닙니다. 왜냐 하면 차체부분의 정비에 대해서는.....

○李成浩 委員;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의무적이 아니고 소규모 이웃 카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비공장을 이용하기보다는 車輛整備事業所를 이용하면 정비의 기간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의무가 아니다는 그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인근 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李成浩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굳이 우리 車輛整備事業所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차체부분만 우리 車輛整備事業所에서 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냥 서비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전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린 얘기 가지고 또 기존에 결정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랄까, 또 정당화 주장이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車輛整備

事業所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의 생각을 가진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존치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또 시간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서 토론할 생각을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車輛整備事業所가 가지는 효율성과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공익성 등등 하시지만 지금 車輛整備事業所에 가장 많이 오는 청소차량이나 그밖에 다른 고용차량의 경우도 일선 구청의 실무자들이나 또는 청소위탁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지로.

그 법적인 의무조항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또 실지로 감사나 뭐 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도사항이 되어서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억지로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선 구청이나 서울시의 기관에서 서울시 車輛整備事業所에 차가 오도록 하는 공문을 띄우거나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실지로 그야말로 독점이라는 배타적인 수주권을 갖고 경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선 구청이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서 현실적으로 車輛整備事業所가 더 효율적이어서 더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제로 많이 온다면 車輛整備事業所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

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 쪽으로 자꾸 오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통해서 100% 달성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서 車輛整備事業所가 민간업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꾸 초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車輛整備事業所를 만들 때 지난번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운전기사분들의 부조리문제가 상당히 만연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차라는 것은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것은 기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고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치지 않고 고친 것으로 영수처리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부조리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車輛整備事業所에서는 그것이 일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청구하면 받아서 예산으로 보내 주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히지 현금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 청소차량과 소방차량과 같은 중차량에 대한 기술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어느 대도시도 다 정비창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 LA, 뉴욕, 파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市政改革委員會에서도 그런 전후 설명을 다 드렸지만, 그것이 고려가 된 것

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成浩 委員; 첫번째, 비리 소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점은 제가 전산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수기로 했었을 때에 구청의 차량들을 수집해 왔던 업체와 이제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구청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했었을 때의 시기는 실지로 1년, 2년 안에 사업이 번창해서 폼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수기했던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정비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황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차력부터 시작해서 죽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차를 아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물어보면 이것 금방 들통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이고요. 특히 車輛整備事業所 담당하는 것이 차체부분이라고 한다면 차체부분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한번 교체하거나 처음 차를 뺐거나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A/S기간에 해 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이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장난 부릴 여지가 거의 지금 원천봉쇄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간부터가 이미.

그리고 더더욱이나 구청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예산집행 자체도 현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점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특수차량에 대한 자체관리.

○李成浩 委員; 그렇습니다. 자체관리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일선구청이나 서울시 일선기관의 차량을 이 쪽으로 가지고 오라 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체를 모으는 시스템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체차량을 꼭 정비공장에 안 가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하기 위한 차원의 정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청소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자기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카센터 비슷한 정도를 채우고 있거나, 또는 현재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차량이 많은데 그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이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이지,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분야별로 각각 차량들이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이것을 취급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논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 車輛整備事業所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車輛整備事業所에 대해서 영업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이 고장난 소유주가 서울시 기관 내의 사람이겠죠.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때 그럴 때 車輛整備事業所의 경쟁력이 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

게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環境管理室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요. 홍보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金寬洙 委員도 여러 가지 홍보책자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내 전광판이 꽤 많습니다.

제가 최근 통계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 일선 구청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시간대를 할애받아서 구정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環境管理室에서 꼭 필요한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전광판 관리하니까 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될 환경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회용품 사용자제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에 쓰레기감량이라든가 이런 재활용문제는 계속하고 있고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한 시민 기념식수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전광판에서.....

○李成浩 委員;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정홍보가 대부분 차지하고 시는 부분적으로 차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구청을 홍보하는, 그래서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으로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튼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광판 홍보 총괄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홍보할 내용을 전부 공보관실에 제출하면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전부 선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해서 그것을 전광판의 관리자한테 전부 돌려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경쟁이 많습니다. 다른 각 부서별로 또 홍보 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구청에서는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으로 할애를 받더라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기본적으로 할애를 받아 났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또 자기 업적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또 環境管理室長님이 1급이시고 企劃管理室長 출신이시니까 좀 파워를 발휘하셔서, 아니면 이런 것을 또 정책회의를 하셔서 일선구청장 협의회 때 내놔라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金鍾來 委員長, 金在實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在實; 수고하셨습니다.

金恩京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恩京 委員; 늦은 시간에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7쪽에 재활용 사업자 지원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렸다고 해야 맞

겠는데요.

지금 재활용 수집하고 이러는 사람 말고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용자금 지원하는 것 말고 진짜 재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문제가 생기거나 인건비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재활용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활용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자를 물을 수 있는 정도 투자해서 수익률이 있으면 이것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재생종이가 경쟁력 자체가 없거든요. 재생종이가 더 비싸고 그것을 지금 구매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어쨌든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기본인데 그것을 가격도 비싸고 질도 좋지 않은 상태를 자꾸 사라고 권고하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실제 판매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찾아볼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1톤의 처리비용 이내이면 서울시는 보조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안 들어오고 재활용에 대한 지원은 용자 이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용자가 아닌 경우는 어렵지 않겠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 나름대로 이 용자를 받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5%니까 싸거든요.

○金恩京 委員; 그렇더라도 그게 채산성이 그것보다 낮으면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전히 기업체 부분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봤었는데요.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의 재활용률이 훨씬 높고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재활용이 훨씬 떨어지면서 거기에 분리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지표선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의 참여를, 재활용이나 감량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을 지난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사업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점관리 하겠다는 항목을 내걸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힘을 쓰겠다고, 우선 이 분야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恩京 委員; 네, 그런데 보고사항으로는 청소교실운영 이렇게 해도 기업체쪽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의 대상자를 보면.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재활용률도 많이 높였고 음식물 재활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유해폐기물 부분이에요.

지정폐기물로 돼 가지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環境部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위탁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정 내 유해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안 올라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토양이나 이런 오염문제는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소각이 돼서 매립이 되든 그대로 매립이 되든 결국은 생태계 내에 유해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축적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합니다. 다른 나라의 수거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區別로 수집소를 하나씩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수거이후의 처리문제를 책임지게 하든지, 環境部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환경문제쪽에, 그러니까 토양이나 수질오염쪽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해폐기물 부분에서 PCB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금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나라 매립에 있어서 PCB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저는 못봤어요.

지금 유해폐기물 중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이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든 간에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소각장 부분으로 가세요.

지금 소각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소각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바닥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지로 수송해서 처리하고, 비산재의 경우에는 온산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번 매립지주민대책협의회에서 바닥재에 대한 검사결과 유해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현재 이 부분은 매립을 못하고 현재 중단 상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環境部가 중간에 들어서 현재 있는 바닥재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재검사를 지난번에 수거를 해서 했는데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바로 그렇게 하고, 내일 주민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비산재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11월까지의 바닥재와 함께 김포에 매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산으로 가고 있죠.

우선 그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비산재 처리자체를 대책 없이 가동한 것은 사실 굉장한 잘못입니다. 그렇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恩京 委員;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매립지의 수질과 토양에 대한 상당한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산재가 어느 정도 유해한 성분이

나왔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金恩京 委員; 모르는 상태인데 왜 온산으로 보내시죠? 그러면 온산으로 보내지 마세요. 모르시면서 온산으로 보내신다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일단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사항이......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이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國會 環境委員會에서 문제가 돼서 비산재는 그 쪽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은 오염물질이라는 게 판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유해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산재는 매립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일단 현재 온산에서 처리를 하고......

○金恩京 委員; 매립에 하여간 서울시가 굉장한 오염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온산에서 이것 안 받겠다고 공문 왔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金恩京 委員; 공문이 왔죠? 이게 경상도권에 어쨌든 그 지역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수도권에서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요 타당하거든요. 왜냐 하면 수도권으로 그게 올라오는 것 우리도 반대할 테니까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제가 알

기로는 비산재는 목동이나 상계동에다가 용융처리시설을 달아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맞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별도 처리시설을 하려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金恩京 委員;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하실 이유가 없는데 비산재는 목동하고 상계동에서 추가로 용융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처리시설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요. 반드시 용융처리시설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형화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金恩京 委員; 네, 어떤 처리시설을 하시겠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산재만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들은 말씀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아직도 생각이 그러신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닥재가 지금 김포에 가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우스운 일이다. 일반폐기물에도 그 성분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소각재 바닥재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은 김포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당연히 매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같으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게 어떻게 똑같은가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게 매립지 2공구입니다. 용량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매립지 2공구에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1공구에도 좋고 2공구에도 좋고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소각하면 대개 6배쯤 묻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을 하면 한 16%쯤 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금속만 따지자면 원래 그 100톤에 있던 중금속 함량이 16톤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함량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 일반폐기물을 묻을 때보다 6배의 오염을 더 묻는 겁니다. 맞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金恩京 委員; 아니요, 양적으로 그렇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100톤에, 그 얘기 하실 필요없습니다. 저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무식한 얘기, 그렇게 얘기하자면 농도조사라는 것을 왜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한 적이 없어서 제가 과장한테 물어 보는 것인데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하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농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金恩京 委員; 아니요, 기술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잠깐만 다시 얘기 드릴게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러면 결론을 얘기 하십시오. 어려운 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金恩京 委員; 결론이 뭐냐 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가 매립지를 산정하는 것은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제가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쓰레기 100톤이 갖고 있던 양을 소각했을 때 그 양에 함유되었던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나올 것이다, 매립했을 때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량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각해서 묻는 것이나 그냥 묻는 것이나 같지 않겠느냐. 다만, 소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오염물질이 생성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으나 저렇게 묻으나 같이 묻는 것인데 왜 태워서 안 되고 안 태우면 되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으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직까지 태우는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金恩京 委員; 확인 못하시는 것도,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추가적인 오염이 생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중급속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맞으려면 만약에 소각재를 묻을 경우에는 매립지 용량의 1/6만 사용하겠다, 매립지에 지금 1,000톤을 묻을 수 있지만 160톤만 묻겠다, 그렇게 할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매립지라는 한정된 용량에 소각을 해서 묻으면, 그러니까 중금속이 1톤이 있다고 생각하면 16톤에 1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지로 보면 100톤을 매립했을 때 일반쓰레기 100톤을 매립하면 1톤의 중금속이 매립되지만 이 소각재 100톤을 하면 6톤 정도의 오염의 들어가는 겁니다. 6톤 정도의 중금속이 거기 매립되는 겁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결국 소각을 했을 경우에 소각재가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소각재를 매립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량이 그 만큼 더 많이 매립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金恩京 委員; 네, 당연하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어떤 절대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용량이 안 찼다 이겁니다. 안 찼으니까 그것은 지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이후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요.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매립을 할 경우에는 매립용량으로,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일반바닥재를 매립할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량의 1/6만 매립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립지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매립지라는 것이 용량문제가 큰 것이지 시간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량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묻는 것 안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제 얘기는 그거죠. 왜냐 하면 아직 용량이 안 찼기 때문에.

○金恩京 委員; 아니, 용량이 안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찼 것입니다. 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환경에서.....

○金鎬一 委員; 과장도 얘기 좀 해 봐, 이 산술적으로 좀 안 맞으니까.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廢棄物施設課長입니다.

지금 金恩京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총량적으로 농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가 나오는 것을 20%로 봤으면 5배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만 묻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을 묻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기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고 나면 1/5만 거기 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또 생산되는 것은 어딘가 매립지에, 우리 나라 국토에 또 묻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양은.

어딘가가 또 새로운 매립지가 나오지 않는 한은 갖다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시간적인 개념만 갖고, 용량적인 개념만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납을 가지고 기준으로 본다 이겁니다.

납이 조금 초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0%만 소각재가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얼마를 납 기준으로 해서 매립지를 총용량 개념으로 봐서 1/5을 줄여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도권매립지를 그것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5 그 외의 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지를 별도로 또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토지 내에 납이라는 성분은 여기나 저기나 같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립지라는 것은 뭐냐, 수도권매립지나 일반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차수벽도 하고 모든 시설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가 일반토양하고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金恩京 委員; 그 얘기는 길게 하실 필요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농도검사라는 것은 도대체 뭇 때문에 합니까? 농도검사라는 것이 뭐예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농도검사를 하는데 지금 바닥재에 대해서 PB만 지금 초과가 되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규정상에서는 초과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flyash부분도 종합적으로 현재 문제점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각재에서 PB가 초과가 돼서 매립지에 못 들어간다, 왜 매립지가 그러면 더 많이 오염이 된다, 어디에 가도 매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총량적으로.

○金恩京 委員; flyash도 김포에다 물어요. 전국적으로 똑같

은데 온산까지 왜 가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지금은 그것이 규정이 그렇게 나와서 현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그것은 별도.....

○金恩京 委員; 현 규정은 왜 만들어졌어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그래서 규정대로 만들어진 것을.....

○金恩京 委員;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규정을 지금 분리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在實; 과장님, 잠깐만요.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앉으세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자꾸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과장님?

○金恩京 委員; 안 되는 것, 되는 것,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委員長代理 金在實; 아니, 위원장이 제재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물어 본 말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이 제재를 했잖아요.

○金恩京 委員; 나가세요.

○委員長代理 金在實; 사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의견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자가 지금 중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감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제재를 하는데 정지를 안해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제가 나가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車星煥 委員; 잠깐만요. 거기 좌석은 무조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金恩京 委員께서 퇴장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잠깐이라도 나가 주세요.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네, 나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저기요,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밤도 늦었고 하는데 지금 조금 단어해석 차이로 시간이 가고 있던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金恩京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같은 부피내에 농도가 6배 높단 말이에요, 태운 쓰레기 갈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의 어느 곳에 묻히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김포매립지측에서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6배의 농도가 어느 정도 더 높은 그런 것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태운 쓰레기가 오면.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자꾸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째로 매립할 때 예를 들어서 1,000톤을 매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각재로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1/5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200톤까지밖에 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용량한계 200톤을 현 시점에서 과연 초과했느냐, 초과했으면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200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용량선

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는 매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용량규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아직 용량한계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립지주민대책협의회에서 그냥 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만약에 1,000톤을 매립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0톤의 1/5인 200톤이라든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쓰레기 1,000톤 묻은 것이나 똑같은 원인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탄 것을 1,000톤을 다 묻어 버릴 때에는 농도가 6배로 높아지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인정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렇게 1,000톤까지.....

○委員長代理 金在實;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현 시점에서는 매립하도록 해 달라 이거죠, 저희들은.

○委員長代理 金在實; 매립을 해 달라 안해 달라는 것은 둘째 문제고, 만약에 1,000톤으로 되면 오염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그럼 됐습니다. 그것이 헛갈린단 말이에요.

○金恩京 委員;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실장님?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리고 또 이것은 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이것 반입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자

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게 되면......

○金恩京 委員; 環境管理室長님, 잠깐만 끝내세요. 됐어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실장님은 廢棄物施設課長님이 아니에요. 廢棄物施設課長님이면 정말 목숨 걸고 소리질러 가면서 폐기물만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環境管理室長님이시면 오염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환경문제 전반을.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金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나 충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金恩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 尹課長님 한 얘기가 뭐냐 하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좋습니다. 그러면 金恩京 委員님, 토론을 위한 토론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아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하셔서 과장 답변을 시켰는데 잠시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에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해서 조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金恩京 委員;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尹課長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室長님과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타임으로 보면 나중에 거기에 묻는 양이 아니더라도 국토 어딘가에 묻힌다, 그러면 오염 총량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는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金恩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면 사실 flyash

온산 가지 마셔야 돼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 얘기가 똑같다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金恩京 委員; 뭐가 똑같으냐 하면, 김포매립지에 매립량이 한정이 있고 그것이 조만간 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室長님은 김포매립지가 어느 정도 비더라며 이것을 소각재가 묻힌 것은 일반쓰레기 양으로 환산해서 매립을 중단하실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용량개념을 도입해서 김포매립지에서는 소각재는 어느 규모 이상, 또 그냥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폐기물은 어느 규모 이상의 최고 한계용량이라는 것이 정해져야 마땅한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검토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선행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용량 자체에 대해서 소각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입중에 있는데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주장은 그것이고 용량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이 다 찼으면 저희들도.....

○金恩京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環境管理室 입장이 뭐가 모순이냐면요. 소각을 왜 하느냐 하면, 매립용량을 줄여서 매립지 사용연한을 늘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용량을 묻되 일반쓰레기 처리량을 늘리자

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소각장건설의 원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을 만약에 일반쓰레기로 환원해서 그 양을 묻자 그러면 차라리 일반쓰레기 묻으세요. 뭣 때문에 돈 들이고, 운반하고 이것 또 해 가면서 소각은 뭐하러 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環境管理室에서 해 온 청소관리시설 다 전체를 없애는 얘기에요. 소각장 건설을 하지 말으셔야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소각재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과연 어느 정도의 환경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검토가 선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판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조가 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각재 자체가 그 기준을 오버해서 좋다 하는 그런 의미는 반드시 아닙니다.

○金恩京 委員;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바닥재가 오염이 있느냐 안 있느냐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검사결과가 오염을 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염을.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전에 처음에 flyash부분을 매립지에 묻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물어온 정말 반환경적인 그런 태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정말 소각장건설 지금까지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각재가 어떤 정도의 독성이 있

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처리시설을 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환경의식이 낮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바닥재 문제, 조금 지나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재가 김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만큼 여러 가지 모순을, 도대체 환경에서 농도검사를 하는 이유 자체 그런 것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장하는 그것이 전에 flyash를 그대로 김포에 버렸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닥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바닥재 처리를 지금 김포에 묻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산재 처리는 고형화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는지, 혹시 검토하셨는지,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바닥재고형화 처리를 못하시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재 처리는 지정폐기물로 관리처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비산재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案에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企劃豫算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의 재원 우선순위면에서 조금 뒤진 것으로 보여졌는지 어떻게 추경에서 꼭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바닥재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순에 와서 바로이기 때문에 바닥재, 비산재 구분도 사실 못하는 시점이었고, 바닥재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식선에서 이것은 그냥 매립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비산재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바닥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 세운 바가 없었습니다.

○金恩京 委員; 왜 검토조차 안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른 쪽에서는 바닥재, 비산재를 같이 처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일산 같은 곳은 이미 두 개를 다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왜 검토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일원동 문제는 어떻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일산에도 비산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산재 자체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러면 일원동에 하는 재처리시설은 어떤 식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산재만 재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돼.....

○金恩京 委員; 아직 설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재 부분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바닥재 부분이 아니고 비산재 부분이.....

○金恩京 委員; 비산재 부분인데 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

도 아직, 제가 지난 달에 일원동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일원동 주민들이 온산에 갔었습니다. 온산에 간 이유가 일원동에 재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온산은 어떤가, 실제로 어떤 것이 유용할 것인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얘기는 구청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직 그게 심각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일원동 문제에서부터 바닥재까지 같이 고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제가 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매립지의 용량문제나 이런 것도 그럴 것이고 실제로 매립지 오염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환경적인면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지으면 재처리 시설의 운영비는 누가 담당 하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위탁료 하는 것과 포함해 가지고 市가 부담해야 될 줄 압니다.

○金恩京 委員; 그런데 소각재 지금 온산으로 가는 비용은 어디서 내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기본적으로 區 쓰레기이기 때문에 반입료는 區에서 부담하는데 그 외 운반비는 市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용융처리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區에서 부담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온산으로 가는 부분은 톤당 반입료가 8만 5,000원 정도 되고요. 톤당 운반비가 3만원 넘게 돼서 2개 합하면 한 1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청에 그것을 물리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반입료는 區 쓰레기로서 매립지에 반입할 때 반입료를 區가 부담하듯이 그런 개념이고.....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을 근거로 누가 무엇을 내고 하는 근거규정은 없는 거죠.

○金恩京 委員; 왜 없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반입료는 사실 구청에서 안 낸 것 아니죠? 소각장에 들어갈 때 반입료 냈죠? 소각장에 들어갈 때 반입료 안 받고 거기서 나오는 것 반입료 내면 그것도 맞죠. 그러나 소각장 들어갈 때 반입료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재에 대해서 이 재를 무엇으로 보느냐예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내의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시켰을 때 그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서울시 시설입니다. 우리는 반입료 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자기 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이 처리비용을 구청에 부담시킵니다.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2차 처리까지 같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金恩京 委員;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게 무슨 법 근거가 분명하게 이것은 누구 부담 그런 것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규정자체가.

○金恩京 委員; 네, 없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처리하는 게 1차 처리, 2차 처리 개념으로 반입료 하고 나머지 운반비는 市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金恩京 委員; 운반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2개 다 운반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시에서 지원항목이 예산으로 잡힌 게 있었어요? 운반을 누가 하는데요? 소각장에서 해요? 소각장에 차가 있나요? 없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위탁해서 하는데 결국 소각장 운영비에서 나간다는 말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金恩京 委員; 아니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다 운반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산재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운영해서 운영비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 어디로 했는지 그것까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金恩京 委員; 아니요, 저는 구청 차량이 소각재를 운반한다고 알고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한불에너지에서 어떤 위탁 업체에 위탁해서 온산으로 보내는지 그것을 제가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恩京 委員; 글썄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반입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반입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金恩京 委員; 아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업체에서 蘆原區 內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떤 1차 처리이건 2차 처리이건 그 나머지 비용을 다 누가 내느냐, 업체가 내요.

그 근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재처리 비용이라는 것이 소각장 운영비에 들어 있지 않았습시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쓰레기 매립 비용을 비교했을 때 1.2차 처리비용을 다 부담하더라도 區로 봐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金恩京 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것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운반비 부분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金委員님, 이 비용부담 문제는 시와 자치구 간의 부담문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 주시죠. 자치구와.....

○金恩京 委員; 아니요, 왜 그것을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용부담 문제까지는.....

○金恩京 委員;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들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제가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소각장 운영비용, 소각장이 얼마나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나라에서 김포에다 무단으로 방치를 함으로써 사실은 재처리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제 비산재가 문제가 있다는 게 國會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비산재 처리문제

가 다시, 저는 바닥재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처리 비용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가장 큰 코스트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 부분을 사실 코스트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사실은 소각장 있는 區에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형평하지 않아요. 그게 김포로 일반쓰레기를 반입하는 구청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근거를 갖고와 보세요.

다른 일반쓰레기를 김포로 보내는 것보다 소각장 있는 곳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근거를 대보세요.

○委員長代理 金在實;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01時 04分 會議中止)

(01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恩京 委員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했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재의 후처리문제요. 그러니까 매립을 하건, 용융을 하건, 그 문제까지가 소각처리비용으로 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이것이 부당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을 지어 준, 그러니까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지 않는 용량으로 지어 준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비용까지 이중으로 물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각장 지금 건설계획이 앞으로 4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소각장건설 기술의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국산화 기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실무적으로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金恩京 委員; 어쨌든 모든 소각장건설이 외국의 기술도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恩京 委員; 지난번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예기간을 정할 때 국산화 기술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때의 원칙은 국산화 기술들을 개발할 기간을 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산화 기술개발 때까지 유예를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난번 그 문제는 국산화 개발이 매듭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국산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개발중에 있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아직 검토한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한 뒤에라야 뭔가 방향이 잡힐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검토할 기회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국산화기술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사실 5년이면 소각장기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각장건설 기술도 사실은 거의가 오염방지시설이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 역시 같은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 조차 안해 보셨다는 것은 웬지 좀 편향적이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ISO14001 인증문제는 누가 제기하셨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우리 環境管理室 자체에서.....

○金恩京 委員; 環境管理室長님이 하신 것, 아니면 과가 어딘지 밝혀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과는 環境企劃課입니다.

○金恩京 委員; ISO14001을 하는 것 자체는 環境企劃課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동과 상계동의 소각장을 인증받겠다 라는 생각은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 업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環境管理室의 환경행정업무의 행정체계와 환경분야의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金恩京 委員;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주무과에서 그렇게 문제제기

를 같이 했습니다.

○金恩京 委員; 주무과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정말 소각재처리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을 아마 은폐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드리면 뭐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는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그렇거든요.

다 아시죠? 다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환경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할 경우에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환경인증문제를 고려하실 것이라고는 답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소각장의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문제는 인증을 받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인증받기 위해서 해당 인증기관에서 우리 행정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내에 꼭 인증서를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연내에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도를 받는다는 뜻에서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우리가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숨겨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이런 기회에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리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자세로 보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恩京 委員; 環境管理室의 ISO인증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쨌든 ISO인증을 받으면서 서울시가 노리는 바는 어쨌든 우리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분적으로는? 내용이 충실화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부분이 미흡하다면 인증이 될 리가 없을 테니까요.

○金恩京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 얘기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ISO14001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여기에 합격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경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환경마인드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기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것에 반대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붙으면 붙은 대로 주민들은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각재 문제, 기획단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새로 설치하는 것들의 용량문제인데요.

앞으로 용량문제는 다시 검토한 증빙을 가지고 얘기하시겠다, 그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배출량의 추계분석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종합적인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별로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金恩京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나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廢棄物施設課에서 용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에 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타당성협의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문제점은 廢棄物管理課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廢棄物管理課가 전체적인 폐기물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목표를 만들고 실천방안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廢棄物管理課입니다. 그런데 유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廢棄物管理課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廢棄物施設課가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廢棄物管理課가 심사해서, 심사가 아니면 협의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廢棄物管理課가 전체적인 지표를 잡아 놓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廢棄物管理課의 제도적인 관할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環境管理室長님 관할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난번에 배출량 추계를 분석할 때 보셨습시다만 그 때도 廢棄物管理課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 때 廢棄物施設課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兩課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안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소각재가 어쨌거나 김포매립지에 토양오염을 상당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누적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매립지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매립지의 관리는 전적으로 조합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이 매립지의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도 環境部の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지조합측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우리 市議員 네 분이 현재 운영회의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恩京 委員; 답변중에 조합관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합구성의 한 당사자가 서울시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당사자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 관리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金恩京 委員;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서울시 폐기물처리정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매립계획을 세우시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아니, 그렇지만 사실은 조합의 1/3에 참여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협의하시는 주체라고요, 지금. 이 형태가 조합이든 어떻든 간에.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잘 파악을 안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金恩京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립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議會에 전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廢棄物施設課長이 거기 회의에 참여합니다. 室長님도 가끔 하실 테고 대리로 廢棄物施設課長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으면 당연히 議會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議會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매립지가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에 대해서 議會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분 위원님께서 가서서 제시지만 의원이 의원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環境管理室 업무 소관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시다만 매립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징계를 받았습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보고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金恩京 委員; 제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그랬고, 굉장히 여러 건으로 부정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서,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예산사업 내용,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전성에 관련한 대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車星煥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委員; 방금 金恩京 委員님이 말씀하신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18명 직원이 4급부터 시작해서 나가 있는 것

이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車星煥 委員; 그리고 예산도 우리 서울시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가장 많이 투자할 예정이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예산투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입료를 가지고.....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좀 틀리죠. 시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車星煥 委員; 어찌 됐든 시비 예산은 직원이 1명만 나가 있어도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입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끝나고 나서도 토지 분할하고 그럴 때도 서울시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앞으로는 업무보고시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 입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3개 시.도가 매립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조합으로 되어 있고 또 별도의 운영회의가 3개 시.도 議會 議員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環境管理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 매립지에 파견되는 공무원도 있고 그 공무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 環境管理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조합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운영현황자료도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업무보고시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室長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여미지식물원하고 어린이공원 있죠? 建設委員會 소관이었습니다만 우리 室長님께서 아까 그분들 여기 나오시라고 그래서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지조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은 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여기서 우리 委員님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평소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조합에서 보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委員長 金鍾來; 정보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은 혹시 예를 들어서 업무상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매립지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아까 그 부분에서는 자료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金鎬一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鎬一 委員; 어차피 시간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1998년 11월 27일 제64차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생활 폐기물 톤당 1만 7,179원을 本委員이 제안을 해서 5% 인하를 했습니다. 그게 톤당 895원인데 인하폭은 5%였습니다. 지하철요금,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쓰레기 반입수수료만이 5% 인하를 했습니다.

本委員은 참으로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쓰레기봉투료가 제가 알기로는 東大門區는 상당히 인하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인하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本委員은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쓰레기봉투료 5% 내리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쓰레기봉투료에서 차지하는 반입료의 비중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인하를 할 만한 요인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립지에 반입료 인하로 해서 특히 우리 서울시의 金鎬一 議員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서 의결해서 부담경감시켰다는 것을 알려 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값 인하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해서 인하는 안 됐습니다. 그 대신 봉투료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는 점도 거기에 연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東大門區에서 인하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어느 區보다도 요금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이 공약으로 선거 때 자기 당선되면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市長님께 말씀을 드렸고, 委員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감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5%가 미미하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차지하는 비중이 0.6%입니다.

○金鎬一 委員; 그게 5%를 인하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은 그게 5%인데 왜 0.6%로 내려서 미미하다고 합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봉투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金鎬一 委員; 그래 가지고 전체가 서울시만 해도 1년에 15억 내지 16억 이익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게 미미하고 그래서 반영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결국 업체들이 5% 이익을 보게 되는 거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반입하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반입료가 내리니까 봉투값을 낮춰 줄 수 있는데 그 봉투값은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봉투값 자체를 낮출만한 비중이 안 되어서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어떤 요인이 생기면 복합적으로 해서 인하할 수 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인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반입료를.....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인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매립지에 매립하게 되면 톤당 5% 정도 859 원은 어차피 덜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입료 부담을 덜게 된 그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만 이익을 보는군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室長님, 제가 4대 때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량제 이전보다는 재정자립도가 한 27% 정도 향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그 때 당시 시정질문을 했더니 아까 반입료가 인상되어서 봉투값이 인상됐다고 인상요인을 얘기하면서, 그 봉투값 인상된 요인 부분을 반입료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담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상되지 않은 구에서는 그대로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인상된 구에서는 반입료를 구청에서 부담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 반입료를 전체적으로 전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전부 반입료는 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4대 때 우리 室長님이 답변을 안하고 지금의 企劃豫算室長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봉투값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상된 區에 대해서는 아까 반입료를 부담시키도록 한다고 했어요.

○李成浩 委員;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반입료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종량제봉투 판매가액 중에서 전액이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區 세입으로 들어오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成浩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서 반입료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반입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반입료가 줄어들어서 구청 재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봉투값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또 그 만큼의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입료 줄이는 것이 봉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의미입니다.

○李成浩 委員; 왜냐 하면 0.6%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반입료와 쓰레기봉투값과는 상호 연계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는 설명이 되려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반입료는 구청이 부담하고 수거비하고.....

○委員長 金鍾來; 지금 대행업체에서.....

○李成浩 委員; 잠깐만요. 그래서 봉투가격과 반입료하고 상호 연관관계는 결국 봉투값의 일부를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반입료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의 효과가 0.6%라는 얘기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金鍾來;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봉투가격에 대한 이익을 수집운반비용

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金鍾來; 그리고 나머지 반입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물었는데 그 때 당시에 2년 전으로 추정됩니다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의 재정자립도가 종량제 이전보다 27%가 향상 됐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또 일부 구에서는 봉투가격을 또 인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이전보다 재정자립도가 향상 됐는데 왜 인상 시키냐고 물어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반입료가 인상돼서 거기에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이 반입료를 그 동안에 구청에서 부담했는데 이제는 대행업체에 부담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에서는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반입료를 구청에서 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일부에서는 대행업체들이 반입료를 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렇습니다. 제가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추상적인 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자립도가 27% 올랐다고 하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값하고 과거의 청소비라는 것이 청소수수료였습니다. 청소수수료라는 것은 재산세를 기준해서 내는데 그 당시에 한 집 가구가 한 달에 내는 것이 180원 그랬습니다. 지금 봉투 한 장만 해도 300원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주일에 봉투 2개를 쓴다고 그러면 값이 벌써 27%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료가 올라서 봉투값이 올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반입료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이 된 시점이었다고, 예를 들어서 170%나 이렇게 오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5% 감액됐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봉투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낮추기 곤란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그 얘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이익만 추구시켜 주는 것 아니냐, 종량제봉투값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반입료가 인상된다, 그래서 그 차액을 여태껏 구에서 예를 들어서 반입료를 물었는데 대행업체에 반입료를 부담시키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속기록을 찾아 보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하나만 물어 봅시다.

봉투값의 얼마 정도가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 쓰레기봉투 팔잖아요. 거기에서 판매가격이 전부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세입으로 일부 들어오는 것입니까?

○廢棄物管理課長 權宗洙; 廢棄物管理課長 權宗洙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규격봉투의 가격구성은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반입료하고, 그리고 또 일부가 판매소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소 수수료는 판매소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작비는 전부다 예산으로 만들어서 각 판매대금이 되면 구청으로 전부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력여건에 따라서 대부분은 반입료의

경우에 매립지 반입료를 구청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구예산으로 하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일부 구의 경우에는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을 안 시키는 대신에 예산으로 반입료를 충당해주는 일부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뺐은 전부 다 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전부 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李成浩 委員; 알겠습니다.

어떻든 쓰레기봉투값에는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반입료하고 판매이윤까지가 다 포함된 가격이다, 이거죠?

○廢棄物管理課長 權宗洙;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봉투값에도 반입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료가 5% 정도 내렸다 하더라도 봉투값에는 반입료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金鎬一 委員; 저는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각 구청마다 직영하는 데가 있고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김포매립지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서 톤당 859원씩 깎아서 저렴하게 받는 것이고, 전체 계산할 때 대행은 대행대로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행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반입료가 5% 내렸는데 좀 내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것 모르는 사항이에요, 아마 구청에서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5% 내릴 때 전체 수도권매립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26억 정도, 그런데 서울에 한 15억 내지 16억이다 그랬으면 서울에 15억 내지 16억을 누구든지 이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구청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마지막으로 각 일선 구청마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각 구청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각각 비용의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알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원래는 청소자립도, 그러니까 청소비용을 받아서 봉투 판매비로 청소비용을 얼마나 충당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애초에 서울시가 2000년까지 자립도를 100%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청소자립도를 100%로 한다, 그렇게 해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종량제를 처음에 실시할 때 앞으로 봉투값을 점점 올려서 그 때 5개년 계획상 그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실제로 시행할 때 부담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는 청소자립도를 100%라는 것을 목표로 주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 목표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廢棄物管理課長 權宗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치구의 청소자립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지역

하고 대항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의 경우 우리 청소자립도가 자치구 직영부분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평가를, 그리고 그 의미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청소자립도가 낮은 구가 강남입니다. 7%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은 구가 성북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청소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자립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뭐 강남은 전부 다 100%가 대항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 것만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자립도를 100%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영의 경우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자립도문제를 대항하고 직영하고 전부 몰아서 한번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에 5%를 내려서 15억, 16억 정도 지금 어디서 이득을 취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실장님 답변하셨고, 또 직영하는 데가 있고 대항업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5% 인하된 반입료가 과연 구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지, 우리 전 서울 시내 구청을 전부 파악하셔서 이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지난 98년 11월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때 통과돼서 99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99년도 이후에 지금 전 구청을 조사하셔서 인하된 액수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 보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다 구에.....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연구와 지역구 활동으로 취득하신 지식으로 금번 회기중 안전심사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環境管理室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02時 07分 散會)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恩京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環境管理室

室長 都明正

水質保全課長 韓忠鉉

廢棄物管理課長 權宗洙

廢棄物施設課長 尹源相

公園綠地課長	崔容豪
車輛整備事業所長	李東塢